

# 1차대전 연합군 총사령관 포슈 장군 군사사상의 현대적 함의

임종화  
청운대학교 중국지역학과

## Contemporary Application of General Foch's Military Thought

Jong-Wha Lim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이 논문은 프랑스 포슈 장군의 군사사상을 분석·규명하여 현실전의 최선방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 포슈의 생애: 보불전쟁 패전으로 프랑스 명예회복을 인생목표로 삼아 군문에 들어선 후 육군대학 교수로서 실전의 지휘관으로서 1차대전의 연합군총사령관으로서 필승의 정신전력을 강조하며 대전을 승리로 종결짓는데 공헌하였다. 2. 포슈 활동기의 시대적 배경: 나폴레옹 실각이후 야기된 일련의 혁명은 유럽에 과급되어 근대국민국가 탄생을 위한 독립 및 통일전쟁의 격화와 해외식민지쟁탈전 심화를 초래하여 포슈 활동기의 유럽은 전 분야가 총체적인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다. 3. 포슈의 군사사상: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심층연구를 통하여 기술중과 전승을 위한 공격적 전투수행의지가 담긴 정신전력의 절대 중요성을 강조한다. 4. 포슈 사상의 현대적 함의 : 전투정신이 실추된 군대에게 필승의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것은 전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5. 결론 : 정신전력 등 무형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포슈의 군사사상은 높이 평가하여 현대전은 필승의 정신전력과 최신의 정예무기활용의 균형적 조합이 최선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어 : 보불전쟁, 나폴레옹 전쟁, 클라우제비츠, 세력균형 이론, 제1차 세계대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military thought of Ferdinand Foch and to present its contemporary meanings.

1.Foch's life: Since 1871 to end of World War I, he acted as a military philosopher, battle field commander, and Supreme Commander of the Unified Forces so as to be judged as Clausewitz of the 20th century. 2. Historical Background of Foch's Activity Period : The series of the domestic revolutions after Napoleon's downfall were extended to Europe for independence, unification and overseas colonial wars. Thus Foch's growing and acting period was in totally imminent danger at all fields. 3. Foch's Military Thought : Through his three books, he argued clearly the absolute importance of the immaterial power including the technical esteem and the offensive fighting will for the victory. 4. The Contemporary Application of Foch's Thought : Though the operation plan based on Foch's strategic thought was defeated at the early stage of the World War I, its offensive-oriented immaterial spirit power should be remembered. 5. Conclusion : Foch's thought which develops the penetration through the war history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mmaterial power should be highly appraised. Thus it should be also reinterpreted and redeveloped into a modern contemporary meaning.

**Key Words** : Franco-Prussian War, Napoleonic War, Clausewitz, Balance of Power, World War I

Received 1 Apr 2020, Revised 13 Apr 2020

Accepted 27 Apr 2020

Corresponding Author: Jong-Wha Lim  
(Chungwoon University)

Email: innovate3000@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1815년 워털루전(battle of Waterloo)의 나폴레옹 패배로부터 1870년 보불전쟁까지의 장기적 평화는 프랑스 군사이론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었다. 이 기간중 프랑스 군은 대규모 전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향수와 앙리 조미니(Henri Jomini)의 전술에 치우쳐 그의 저술은 고리화 되어 다른 군사이론과 지식연구는 불필요 하게 보였다. 그러나 1870년 보불전쟁의 패전 이후 프랑스군 장교사회에는 프랑스 군사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프랑스가 누리던 군사적 우위가 상실되었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 문제의식의 핵심은 프랑스 군 고위사령부의 무능함과, 철저한 교육 훈련과 잘 편성된 참모체제에 의해 운영되는 러시아 군과 대결한 프랑스 군의 무지와 무모함에 대한 반성이었다.

1874년 프랑스 군 수뇌부는 군사체계를 러시아 모형으로 개편하여 무시되었던 군사이론의 습득과 지식 및 기마술과 같은 실기능력을 숙달토록 하고, 1878년에서야 육군대학을 창설하여 육군의 지식교육과 고급장교들의 훈련도장을 열었다[1]. 1885년 젊은 장교이던 포슈(Ferdinand Foch)도 이 학교에서 수학 후, 1894년에는 교수가 되어 강한 정신전력을 강조하는 그의 독창적 사상체계가 전통이론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제1차세계대전까지 프랑스군의 정신전력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70년의 보불전쟁부터 제1차세계대전까지 프랑스가 직면해 있던 시대적 배경과 포슈의 생애와 행적을 통해 그의 인생최종 목표가 무엇이었으며 그의 군사사상기초가 현대에는 어떠한 함의를 제시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 2. 포슈의 생애와 활동기의 시대적 배경

### 2.1. 포슈 장군의 생애

프랑스 남서부지방의 타르브(Tarbes)에서 태어난 포슈는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가지고 18세이던 1869년에 콜폴리테크니크의 입학준비를 위해 알사스-로렌지방에 위치한 메츠(Metz)의 생클레망 예수회군사예비학교

에 입학하였다. 수학도중이던 1870년 보불전쟁이 발발하자 나폴레옹3세는 개전 2개월이 되기도 전에 항복하였으나 러시아의 몰트케(Helmut von Moltke)장군은 공격의 여세를 몰아 메츠 요새 함락 후, 이듬해 1월 파리까지 진격함으로써 프랑스는 1871년 종전과 함께 50억 프랑의 전쟁배상금과 알사스-로렌지방을 러시아에 할양하고 만다.

조국 프랑스의 무기력한 전쟁을 목격하고 학업에 복귀한 포슈는 메츠가 러시아 점령하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업에 임하게 된다. 이때 포슈가 느낀 굴욕과 치욕은 훗날 프랑스 명예회복의 가치를 인생목표로 삼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보불전쟁이 끝나던 1871년 포슈는 기병(騎兵) 특기의 포병장교로 임관하여, 34세이던 1885년 육군대학에 입학·수학한 후, 1894년부터는 동대학 조교수로 발탁되어 1900년까지 미래 프랑스의 고급지휘관이 될 장교들에게 전술학과 전쟁사를 역동적으로 강의했다. 1907년 소장으로서 진급하자 수상 클레망소(Georges B. Clemenceau)의 추천으로 육군대학 교장에 취임, 1911년까지 재직하면서 실장의를 통하여 프랑스군(軍)의 정신개혁과 전쟁사교육에 힘쓰는 한편 군사사상을 망라한 저서, 『전쟁의 원칙; Des Principes de la guerre(1903)』과 『전쟁 운영론; De la conduite de la guerre(1904)』 및 『전쟁지도(1905)』를 연이어 발간하였다.

포슈 장군의 전쟁사 강의는 전통적인 서술적 방식을 지양하고 독특한 교육방법을 썼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단순히 양 진영 군대의 행동과정을 사실에 입각하여 강의하지 않고 한쪽 편의 입장에서 적정(敵情)에 관한 정보획득 수단, 획득한 정보에 입각하여 세운 전술 및 전략계획의 타당성과 명령 및 군사적 행동과 그 결과까지 세심 분석하여 문답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따라서 당시의 전황(戰況)에 대해 포슈 자신과 학생 장교들과의 감정이입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되어 현장감 있는 지휘통솔의 전수가 기대되었다. 열정적이고 박력에 넘치는 포슈의 강의는 학생장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고 병학(兵學)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3].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포슈는 프랑스 육군 제20군단장으로 로렌지역의 전선전투를 지휘하였으나 파리의 중앙 방어선이 위태로워지자 프랑스 군 총사

령관 조프르(Joseph Joffre)장군의 명령으로 파리로 이동, 위급한 파리지역 중앙전선 분견대를 지휘한 이후 1915년에는 북부사령관, 1918년 3월에는 서부전선 연합군 사령관을 거쳐, 동년 5월 8일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어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이로써 제1차세계대전의 승전으로 숙원이었던 알사스-로렌 지방을 프랑스 국토로 되찾게 되고, 1929년 78세로 파리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생루이데앙발리드 교회 나폴레옹 묘 근처에 묻혔다.

## 2.2. 포슈 장군 활동기의 시대적 배경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은 근대 역사발전의 출발점이자 현대사 이해의 필수전제로서 절대주의체제를 타도하고 근대시민사회를 수립하여 구제도의 혁신에 따르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노예제 폐지, 교육혁신이라는 의의를 남겼다.

혁명사상은 나폴레옹에 의하여 유럽에 확산되었다.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하여 재정파탄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혼란 정국을 전복시키고 유럽에서의 프랑스패권을 인정하게 하였으며 1806년에는 영국을 굴복시키고자 대륙봉쇄령으로 영국의 고립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시도는 영국의 역봉쇄(逆封鎖)로 프랑스 국내의 산업발달에 타격을 주고 유럽제국(諸國)의 반발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원정 실패와 이어진 1813년 라이프찌히 전투의 참패로 유배되었다.

나폴레옹 실각직후 1814년에 개최된 빈(Wien)회의는 프랑스 혁명사상을 거부하고 제2기의 절대왕조 체제로 복귀하려는 정통주의와 보상주의로서, 회의의 결정사항을 보장키 위해 4국동맹(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이 체결되어 강대국 간의 이익균점은 되었지만 약소국이나 신흥국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었기에 먼로주의(Monroe Doctrine)가 지향하는 불간섭주의 선언(1823)을 계기로 붕괴되었다. 이 와중에서 프랑스는 1825년의 7월혁명, 1848년의 2월혁명, 1851년에는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로 인한 제2공화정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혁명은 유럽에 파급되어 근대 국민국가 탄생을 위한 국민전쟁으로 비화되어 이태리의 해방전쟁, 독일의 통일정책, 미국의 남북전쟁 등으로 프랑스 혁명에 이어 제2의 전란시대를 맞는 계기가 되었다. 특

히 1870년 스페인 왕위계승 문제로 발발한 보불전쟁은 세당전투(battle of Sedan)에서 프랑스가 항복함으로써 독일의 비스마르크(Otto Leopold von Bismarck)는 알사스-로렌의 할양과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의 고립화를 위해 프랑스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보장기구로 끌어 들여 프랑스의 복수전쟁 기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동일시기에 유럽 중산계급의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산업혁명이 영국에 이어 유럽 각국에 파급적으로 확산되었다. 소위 제2차 산업혁명으로 후속되는 이 시기는 유럽 각국의 비약적 생산력의 소화를 위한 해외식민지 쟁탈전이 심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 2.2.1. 정치적 상황

이 시기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획득정책으로 빈번한 식민지 전쟁이 발생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영국은 아시아, 프랑스는 아프리카, 러시아는 발칸지역, 미국과 스페인은 태평양 제도(諸島)를 대상으로 식민지 정책을 펼쳤고 독일의 경우 서아시아와 발칸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발칸지역을 식민지화 하려던 러시아와 오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4].

보불전쟁중인 1871년 1월 독일제국(獨逸帝國)의 성립을 선포한 프로시아는 1872년 총리로 등장한 비스마르크 주도로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3국동맹(1882~1915)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 결과 유럽대륙은 독일중심의 3국동맹과 독일제국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삼국 간에 체결한 영국중심의 3국협상으로 양립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들은 종래에는 독일의 3B정책, 즉 베를린, 바그다드, 비잔티움을 잇는 식민지정책과 영국의 3C정책, 즉 카이로, 케이프타운, 켈커티를 잇는 식민지 정책의 충돌[4]로 비화되어 모든 관련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물고 물리는 위기의 상황을 파생하였다.

이렇듯 포슈가 성장하고 활동하던 시기의 유럽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군사 등 전 분야에 있어 총체적인 위기일발의 상황에 있었다.

### 2.2.2. 군사적 상황

제2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무기체계발달을 초래하고

대량생산으로 이어져 전쟁의 가열화, 전장의 광역화 그리고 전쟁의 장기화를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물자의 대량생산과 소모로 이어져, 부족한 물자 보충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생산력이 총동원되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무기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1914년의 마른전투(Battle of Marne)에서는 참호전으로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기존의 방어화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공격수단의 필요에 의해 기관총이 등장하여 초기의 기관총은 중기관총으로 1개 진지에서만 고정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으나, 1916년경에는 경기관총이 개발되어 전선전투(battle of lines)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박격포도 개발되어 근거리 사격과 참호내의 병력제압이 가능해졌고 포병무기의 등장은 화력 증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무기의 혁신은 독가스 사용이라는 치명적 수준에까지 접근하여, 1915년 4월 프랑스의 이프르전투(battle of Ypres)에서 최초로 염소가스가 사용되는데 이어 1916년 베르딩전투(battle of Verdun)에서는 독일군이 화학탄을 사용하면서 치명적 타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방어와 공격의 고전이 되어버린 철조망과 수류탄도 이 시기에 개발되어 방어력은 더욱 강화되고 정면돌파는 제한됨으로써 참호전, 교착전은 그 끝이 더욱 깊어져 갔다. 비행기도 성능은 열악했지만 적지 정찰에 긴요하게 활용되었다.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것은 전차의 등장이었다.

참호전(trench warfare)이 장기화되어 기관총 제압을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가 필요하던 시기에 영국의 스윈턴(Ernest Swinton)공병대령이 미국의 트랙터와 유사한 차량을 개발하여 1916년 솜즈전투(Battle of Somme)에 최초로 투입되었다. 이 무기는 독일군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충분했고, 그로 인해 독일군에게 65만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게 하여 전투에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동시에 교통 및 통신의 기술혁신으로 철도와 자동차가 실용화되어 부대수송이 용이해졌으며, 무선전신과 라디오가 전투지휘의 새로운 도구로 등장하여 적진에서의 임무형 지휘에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기계공업의 발달은 해군전략에도 전기를 마련, 전투함, 잠수함 등을 경쟁적으로 제작활용하여 본격적인

건함(建艦)경쟁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렇듯 1차대전의 후반에는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달과 무기효과의 증대로 무기가 전략을 선도하는 역전현상을 보이게 되었다[4].

### 3. 포슈 군사사상의 형성 배경과 영향

#### 3.1. 프랑스군에 대한 포슈 장군의 평가

프랑스의 전쟁관은 생사의 투쟁이 아닌 영광과 치욕의 문제이고 명예의 관점에서 자신감을 견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프랑스 군의 전쟁관은 무엇보다도 프랑스혁명을 거쳐 국민군[5]을 이룩한 나폴레옹의 업적과 조미니라는 걸출한 전략사상가를 배출했다는 자신감과 자만심의 소산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은 1870년 보불전쟁 패전 이후 프랑스군의 조직과 참모기능 및 최고통수부의 결함을 반성하고 프리시아군 체제를 모방하여 참모본부 전면개편과 1878년 육군대학 창설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포슈의 프랑스의 보불전쟁 패인 분석은 戰史연구로부터 시작된다. 포슈는 당시 프리시아 몰트케 장군이 시행한 작전에도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몰트케는 전장에서 예하 각사령관들의 독창력에만 의존하고 최고사령부는 행동의 여지가 없었으며, 경계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자주 행하고 작전계획 수립 시 정확한 적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가정에 입각한 기도판단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결정적 우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프랑스군의 패전은 프리시아 군의 완벽한 전략때문이 아니라 프랑스고급사령부가 무능하여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무능력의 핵심 원인은 유연성 없는 작전계획과 고급지휘부의 지휘결여에 있었다[3]면서 유능한 지휘관의 양성은 단순한 군사기술 습득만으로 될 수 없음을 비판하였다.

#### 3.2. 프랑스의 군사개혁

포슈는 자국 군대의 패인 탐구를 위해 독일의 군사사상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심층 연구하여 프랑스 군사상에 혁명적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는 1894년부터 육군대학의 교수로서, 장군진급이후 소장으로서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육대총장에 재직하면서 장차 프랑스 군의 중견간부가 될 육군대학의 입교생들과의 토론식 교

육방법을 도입했다.

군사연구에도 정진하여 『전쟁의 원칙(1903)』, 『전쟁운영론(1904)』 및 『전쟁지도(1905)』를 출판하였을 뿐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최고지휘관으로도 활약했다. 포슈가 목표로 했던 것은 프랑스군의 불굴의 전투정신재건과 프랑스 군의 명예회복이었고 중국에는 이들을 실현하였다.

그의 군사사상 형성에 있어서는 프랑스 군사사상(軍思想)형성의 태두였던 조미니의 영향보다 적국의 클라우제비츠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았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포슈는 “20세기의 클라우제비츠”라고 칭해지고 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기술존중, 수학적인 프랑스 군의 체질을 시정하기 위한 “정신전력 요소의 함양”이었다.

### 3.3. 프랑스 전통 군사사상의 영향

포슈에게 외증조부와 나폴레옹은 그의 군사사상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나아가 나폴레옹의 참모였던 조미니 역시 포슈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적진의 최고 취약한 곳에 최대의 병력을 집중하라는 나폴레옹 전법의 추종자이자 책사였던 조미니의 『전쟁술 개요(1837)』는 후일 포슈가 육군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며 집필한 『전쟁의 원칙(1903)』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프랑스 사상이 중에서는 메스뜨르(Joseph Marie de Maistre)의 영향이 가장 지배적이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패배란 자신이 패배했다고 믿는 전투이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는 결코 패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던 메스뜨르의 명언[2]을 포슈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1914년 제1차세계대전 초기의 국경전투에서 패한 프랑스 군이 마르느전역에서 반전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프랑스 제9군을 지휘하며 독일군 제2군과 3군의 돌파를 저지했던 포슈가 남긴 불후의 명언 “나의 중앙은 무너지고, 우익은 철수 중이니 그야말로 상황은 최고이다. 나는 공격할 것이다”라는 언급은 그가 메스뜨르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듀피크(Charles Jean Jacques Joseph Ardant du Picq)도[7] 포슈군사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듀피크는 “전투에서의 승패는 사기에 있으며, 공격자의 사기가 방어자의 그것보다 우세하다”면서 공격의 중요성

을 설교하였다. 특히 듀피크가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하고, 논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보다 더 잘 조사하여 조직편성에는 단결이 군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배를 공정히 하라”고 강조하는 군대운용기본규칙에 대해 포슈도 적극지지[1]하면서, 강력한 투쟁정신으로 뭉쳐진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후 포슈가 전술의 3단계를 준비, 집단, 추진으로 구분하고, 두번째 단계인 집단에서 물적, 인적자원의 집단적 운영과 단결을 강조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6].

### 3.4. 독일 군사사상의 영향

포슈가 20세기의 클라우제비츠라고 불리우는 것은 포슈가 클라우제비츠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는 점과, 유럽의 군사전략가들 가운데 독일에 클라우제비츠가 대표될 수 있다면 프랑스에는 포슈를 거론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슈의 사상에서 전투수행을 위한 공격정신과 정예무기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클라우제비츠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1]으로 판단된다.

클라우제비츠 이외에 프러시아 출신의 블뤼헤르(Gehard Leberecht von Blücher) 역시 포슈의 군사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전진원수(前進元首)라고 일컬어지는 블뤼헤르는 “격과당하면 당할수록 맹렬하게 재기하여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장에서 이를 직접행동으로 보여 주었는데, 포슈는 이러한 불굴의 정신이 보불전쟁시 프러시아 군의 사기를 끝까지 유지시켜 최후의 승리를 획득케 한 원동력이라고 찬탄[3]하였다.

골츠(Wilhelm Leopold Colmar von der Goltz)도 포슈의 군사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골츠는 전략(strategy)는 지휘통솔 과학이고 전술(tactics)는 부대운용 과학이라 정의하고, 근대전은 국가가 행하는 ‘비즈니스’라 했다. 골츠는 독일은 보불전쟁 승리 후 프랑스를 대상으로 상공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독일인과 독일정부가 부유하게 된 것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청일전쟁에서 승전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얻은 영토와 상업상 이익이 막대했다는 사실도 지적[2]하고 있는데, 골츠의 사상은 “전승의지와 공격정신은 결국 승리를 통한 시장개척으로 종착되는 것”이었다. 이를 간파한 포슈는 전투에서 공격정신과 전투수행 의지의 중요

성을 자기이론화했다 할 수 있다.

### 3.5. 포슈의 군사전략과 전술

제1차세계대전이 종료되어 가던 1918년 독일군은 완벽한 기습과 후티어(Oskar von Hutier)장군이 창안하여 계속발전시켜 온 공격전술과 보병의 탁월한 전투력 소유자이자 독일군 총사령관 루덴도르프(Erich Friedrich Wilhelm Ludendorff)의 천재적인 군사전술 감각으로 혁혁한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은 이같은 전술적 성공을 전략적 승리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독일이 돌파구를 형성하였다해도 이를 확대시킬 예비병력이 없었다는 점과, 설사 돌파구가 형성되어 병력들이 도보로 전진하고 있을 때, 연합군은 예비병력과 군수품을 철도로 수송하여 1주일 이내에 강력한 역습을 감행하는 유리한 전략적 입장[8]으로 역전되는 점에 있었다. 이 사이 독일군은 제4차 공세시에는 악성 인플루엔자의 피해로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제5차 공세전후해서는 군사령관에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염증을 느끼는厭戰(厭戰)사상이 팽배해 있었다.

대전이 종전으로 치닫고 있던 1918년 5월 8일 포슈는 연합군 총사령관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독일군 못지않게 연합군 내부에도 지휘권을 두고 상당한 분열문제를 안고 있었다. 1918년 3월 21일 피카르디에 있던 영국군 전선이 독일군 공세에 붕괴되었고, 3월 23일의 전황은 영국-프랑스 협정의 한도를 벗어나 각자가 알아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영국의 헤이그(Douglas Haig)장군은 탈출을 위해 영국군의 출항지를 탐색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빠뎡(Philiph Petan)장군은 영국군의 붕괴에는 관심없이 오직 파리 수호만을 생각[10]하는 상황에 있었다. 더욱이 1916년 6월 이후 급파되어 온 미국은 실질적 전력발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머리없는 몸통과 같은 연합군 분열과 유명무실한 미군의 참전상황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독일군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이 포슈 사령관이었다. 이전부터 국가별 군대로 분열상을 보여 연합군지휘 통솔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합군의 각군대는 자국군대의 처지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연합군전선의 붕괴를 초래할 것임으로 통합된 연합군지휘권 수립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포슈 장군의 조언을 무시해 오던 영국의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총리와 프랑스의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수상은 위급상황에 직면하자 1918년 3월 26일 포슈에게 서부전선 연합군 통솔지휘권을 부여하고, 5월 8일야 연합군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자국 정부의 명령을 더 중요시하는 영국의 헤이그(Haige), 프랑스의 빠뎡(Petan) 그리고 미국의 퍼싱(Pershing) 장군들에 대해 포슈는 설득과 인격적 감화로 자기의도를 관철시키면서 연합작전을 원만히 수행해 가기 시작했다. 포슈의 연합군총사령관 취임이후 연합군의 동맹은 보다 굳건해졌으며, 동맹을 바탕으로 우세해진 해군력은 독일해안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여 독일의 경제적 고립을 통해 후방 독일국민들의厭戰(厭戰)사상을 이끌어 내었다. 나아가 프랑스의 구로우(Henri Gouraud)장군이 개발한 중심방어전술(tactics on defense in depth)은 독일의 후티어 전술(Hutier's tactics)에 적중하였고, 미국의 참전으로 초래된 세계여론의 독일비판도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다[8].

이러한 과정에서 포슈는 앞에서 언급한 루덴도르프의 전략적 결함이 예비대의 부재에 있음을 간파하고 예비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부하장병들에게는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남아있는 비축품들을 절약하면서, 영국의 헤이그와 프랑스의 빠뎡 장군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예비대의 전용을 수락하지 않고 연합군의 결정적 반격을 위한 전략 예비로 확보하여 오고 있었다.

결국 포슈의 인내심과 강한 의지가 수적 우세와 주도권을 장악한 독일군 총사령관 루덴도르프의 5차례에 걸친 강력한 공세를 저지하게 되는데, 이는 연합군 지휘관 상호 의지의 싸움에서 포슈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 4. 포슈의 군사사상과 현대적 함의

### 4.1. 포슈 장군의 군사사상

포슈는 전쟁의 주체는 요새의 강약이나 무기의 우열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고 전투의지로써, 전투는 적을 격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의 저항의지와 사기의 말살을 목표로 하는 것임으로 “불굴의 정신 즉 필승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 하였다. 패전이란 자신이 패배했다고 믿는 전투로서 패전을 시인하지 않는 한 전승은 적에게 있

지 않다는 단호한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정신전력의 강조는 합리적 정신과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프랑스 전통과 일치하지는 못했지만, 제1차대전에서 엄청난 물질적 손실도 감내해가면서 4년여에 걸쳐 싸웠던 프랑스군의 공격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포슈가 프랑스 육군대학의 조교수를 시작했을 무렵에도 프랑스 군사학교는 군대의 편제나, 조직, 지형, 병기, 사격 등 기술 및 공학 일변도의 군사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프랑스 군내에 풍미하고 있던 기계화 이론에 기인한 것으로, 이 기계화 이론은 '양측의 사기는 동등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적인 우세만 갖췄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풍조[1]였다.

그러나 포슈는 그러한 가정은 어리석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결코 전제될 수 없는 가정이며, 유능한 지휘관 양성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념에서 포슈는 프랑스육군대학의 조교수 시절부터 일반전술학과 전사(戰史)를 교육하기 시작했고 획기적인 교수법으로 단순한 서사식 전개 방법을 탈피하여 학생장교들 스스로가 깨달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사교육 자체가 지휘통솔로 접목되도록 노력하였다.

#### 4.1.1. 전쟁의 4원칙

포슈는 전쟁원칙은 전장(戰場)에서만 습득할 수 있다는 통념을 반박하고 정확한 역사적 실례를 바탕으로도 가능하고 또한 항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전황이란 각각 독립된 특수상황이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 것임으로 전쟁원칙은 상황에 따라 수정·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전투를 제외하고는 전쟁계획 수립은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최종목표의 도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슈는 클라우제비츠의 절대전쟁 개념을 수용하여 전투는 전쟁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전투가 없는 승리는 없다 하면서 이를 위해 병력절약(경제)원칙, 경계의 원칙, 자주적 행동원칙, 공세작전의 원칙 4가지 원칙을 설파하였다.

1) 병력절약의 원칙 : 포슈는 방어주의적 전략은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군대를 자유자재로 기동시켜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집중된 전력으로 적에게 대타격을 가하는 즉시 제2목표로 기동해야 함으로 결정적

공격을 위한 병력의 절약이 필요하다[6]고 강조한다.

2) 경계의 원칙 : 포슈는 적의 정보획득은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현실을 의심하고 공세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다해 적황 탐지에 노력하고 엄호부대와 경계부대를 운용할 것을 강조하고, 이의 운용을 위해 물질적 경계와 전술적 경계로 구분짓고 있다. 물질적 경계는 위협시 아군에게 안전감을 제공함으로 부대의 정지 또는 전진 수단이 되는 것[1]이며, 전위대활동을 통한 전술적 경계는 불리한 상황에도 아군에게 안정감을 준다 한다.

3) 자주적 행동원칙 : 포슈는 수동적, 기계적으로 명령만을 절대복종하는 군대로는 광대한 전선에서 발생하는 전황에 기선을 잡을 수 없다면서 수시로 바뀌는 전황에서 상급사령부의 세세한 명령은 오히려 시의적절(時宜適切)하지 못함으로 명령은 가급적 간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 공세작전의 원칙 : 공세작전의 형태를 전투기동과 전선/병행전투로 구분하고 전투기동(battle maneuver)은 기습달성과 궁극적 승리를 거두는 미래전투의 최고의 전투방식인 반면, 전(全)전선에서 공세를 취하는 병행(parallel battle)/전선전투(battle of lines)는 공세행위를 예하대의 독단행동에 맡겨 개개 병사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소모전이며, 총사령관의 방책선택과 기동능력 발휘의 여지가 없는 졸렬한 전투방법[6]이라고 한다.

#### 4.1.2. 전사(戰史) 중요성의 강조

포슈는 전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를 통한 준비, 집단, 추진의 3단계 전술을 연역적(演繹的)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전술의 3단계는 적과 대결하는 목적이 적의 격파와 격멸이라는 전제조건에서 출발한다.

1단계 준비는 적에 앞서 준비하고 적을 능가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며, 2단계 집단은 한 나라의 인적, 물적인 힘의 대부분은 집단을 형성하여 전쟁을 위해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3단계 추진은 전장에서 이동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격자와 방어자 공히 부대의 공격적 행동이 전투의 궁극적 요체임으로 이 행동으로 최종승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포슈는 최종 투입되는 예비대를 기병부대(騎兵部隊)라 함으로써 발전된 무기체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기

도 한다.

## 4.2. 포슈 군사사상의 현대적 함의

### 4.2.1.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교훈

1913년 포슈 군사전략사상의 영향하에 수립된 작전 계획은 개전시 즉각공세를 취한다는 의도가 표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독일군이 뮤즈강 서부에 주력을 투입하지 않으리라는 오판과 독일 군사력을 과소평가한 공세위주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1차대전 개전초에 대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포슈의 기동전에 대한 신념도 참호전(진지전)의 새로운 양상전개로 흔들리고 최상의 전투방식이라 확신했던 기동전투도 전선전투(battle of lines)로 전환되는 상황도 실패의 요인이기도 했다.

1918년 3월 26일 이래 포슈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무모한 낙관과 불굴의 정신으로 압도적인 독일의 압력에도 기존의 전선을 유지했다. 승리란 공격과 적의 격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도 전에 연합국 영토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 1차대전의 휴전 성립은 그의 전략사상이나 주장과는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포슈는 전쟁이란 명확한 결과를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목적 달성을 위한 방울의 피라도 더 흘리게 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며 전략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역설하고 있다.

포슈는 1차대전 휴전협상에 임해서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해 라인강 대안(對岸)의 교두보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미 군인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끝이 났고 휴전협상이라는 정치게임에 끼여들 여지는 없었다. 어쩌면 라인강 지배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도 프랑스의 유럽 헤게모니를 견제하는 주변국 우려를 잠재우기위해 국제평화유지군 주둔을 승인한 것은 정치적 해안이었다고 판단된다.

### 4.2.2. 포슈 군사사상의 현대적 함의

1870년 보불전쟁에서 프러시아에 참패하고 알사스-로렌지방의 할양과 50억 프랑의 전쟁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프랑스는 복수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존의 귀족에 의해 보직된 군 수뇌부의 쇄신과 개혁은 필연적 과정이었다.

포슈가 정신전력적 요소를 강조하며 당시 소극적·수동적인 방어 경향에 빠진 프랑스 군을 향하여 불굴의 전투정신을 고취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역사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쟁은 탁상에서도 가능하다는 실천적 교육을 실시하였고 상황판단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를 갖는 정보를 기초로 적의 기도를 추측할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을 강조한 것과 왕성한 책임감, 실천력, 자주적 판단력에 의한 자주적 행동의 자유를 강조한 점은 현대에도 매우 유용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차대전 초기의 적용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물질적인 요소를 경시하고 불굴의 공격정신만으로 모든 전투를 저돌맹진으로 수행한 것은 무모한 극단적 공세주의였다. 당시의 기술발전에 수반된 화력, 통신 및 수송수단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각 병사의 간격을 1미터로 규정하고 대형을 중시하며 화력의 위력을 도외시한 공격을 강조한 것이나 공격준비 없이 조급한 공격을 실시하는 것 등은 화력의 중요성이 증명하여 공세주의가 용병상의 한계점에 도달한 시대에 그의 사상은 시대변화의 큰 벽을 허물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 5. 결론

보불전쟁의 패배로 프랑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하며 군인이 되었던 포슈 인생의 최종목표는 프랑스의 전투정신재건과 실추된 프랑스의 명예회복이었다. 그의 출발점은 무형전력의 갱생이라는 확신때문에 전쟁의 주체는 인간의 힘과 의지라고 강조했고, 전쟁의 승패는 자기양심에 대해서 자기가 패했다고 명하는 자만이 패한 것이라 역설했다.

이러한 그의 지론을 펼치기 위해 포슈는 프랑스 육군 대학에서 전사를 통한 교훈을 토대로 정신적인 요소, 사기와 공격의 중요성을 고급지휘관들에게 직접 강의하며 그러한 정신을 일깨우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시 각 전투에 참전해서는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프랑스를 지켜냈고,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의 뛰어난 인품과 지도력으로 전쟁핵심을 간파,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인류공영과 세계평화 이바지의 선봉에 섰다.



그러나 프랑스 군사사상에 대해 공격정신과 사기 등 정신적인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물질적 측면을 경시한 나머지 1차세계대전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며 발전하는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전술개념으로 전장에 임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를 적시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필승을 목표로 하는 정신전력과 최선의 정예무기체계 활용의 균형적 조합은 최선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1차대전의 휴전 이후 포슈는 독일의 재침을 막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완전한 안전보장을 위해서 라인강 대안(對岸)점령을 강력주장했으나 클레망소수상은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려는 데에 격분하여 포슈를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명하였다. 클레망소의 명언 중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장군들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9]는 언급은 포슈를 견제한 말이라고 사료된다. 연합국들 역시 프랑스의 유럽 내 패권장악을 우려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베르사이유조약은 독일의 제2차세계대전 재발이라는 암적 요소를 잉태하게 하였고, 포슈는 방관자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말년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사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우고 공격정신, 사기 등의 정신전력, 무형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를 몸소 실천했던 포슈의 군사사상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포슈의 군사사상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필승불굴의 정신전력과 최선의 정예무기 활용의 균형적 조합은 최선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참고 문헌

[1] 육군본부편, 『현대전략사상가: 마키아벨리로부터 히틀러까지의 군사사상』, 서울: 육군본부, 1996.  
 [2] 국방대학원, 『전쟁의 지도』. 서울: 국방대, 1981.  
 [3] 임형주,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전략』, 서울: 국방참모대학, 1997.  
 [4] 박경현, 현대군사전략개론, 서울:국방대학교, 2004.  
 [5] Hugh Smith, On Clausewitz: A Study of Military

and Political Ideas, Palgrave, 2005.

[6] 김현기, 『신 현대군사전략사상가』, 서울: 상지피엔아이, 2015.  
 [7] Ardant du Picq(1821~1870), 저서 “전투연구(Battle Studies)”.  
 [8]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편, 『세계전쟁사』, 서울: 황금알, 2005.  
 [9] 엘리엇 코언; 이진우 역, 『최고사령부』, 서울: 가산출판사, 2002.  
 [10]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2004.  
 [11] 김현기, “포슈의 군사전략사상,” 『군사저널』, 2005, 12월호.  
 [12] 大橋武夫편;강창구역, 『통수강령』, 서울병학사, 1995.  
 [13] 노병천, 『도해 세계전사』, 서울:한원, 1990.  
 [14] Carl von Clausewitz저; 김홍철역, 『전쟁론』, 서울: 삼성출판사, 1992.  
 [15]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2010.  
 [16] www. naver.com. 네이버백과사전

## 임종화(Lim, Jong Wha)



- 2006년 6월 오하이오 애크런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
- 2009년 12월 영국 브래드퍼드 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 2014년 8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 2019년 9월~청운대학교 중국지역학과 연구교수
- 관심 및 전공분야: 중국사, 유럽군대사, 국제정치경제사, 경영학
- E-Mail :innovate3000@naver.com